

[사회]

폭력충돌 '선암사 사태' 한달

재산권 분쟁과 주지 임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태고종(太古宗) 총무원과 순천 선암사(仙巖寺) 충돌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가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태고종 총무원 측 승려 40여명과 총무원 신임 주지 승조 스님은 경호업체를 동원해 경내 진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암사 스님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폭력을 휘두른 승려 7명과 경호업체 직원 19명이 순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신도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여 종무소를 차지하고 있던 총무원 측을 몰아냈다. 종무소는 절 입구를 총괄하는 곳인 만큼 종무소 장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총무원 측은 "선암사 재적승(在籍僧)들이 타협에 나서기보다 신도들을 동원해 문제를 확대했다"며 "내부적인 종법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 대변인 도월 스님은 "총무원 측은 총무원장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겠다는 우

대화마저 끊겨 해결 실마리 못찾아 총무원 내일 대책회의 등 최대고비

총무원 측이 종무소(宗務所)를 차지하자 선암사 측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총무원장 즉각 사퇴 ▲도선암 등 선암사 재산 및 공금 반환 ▲선암사 총림법을 비롯한 운영위법을 파기해 선암사 자주권과 운영권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총무원 측은 그러나 "종교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사태를 일축해 왔다.

이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지난날 23일에는 대화를 통한 협상도 중단됐다. 31일에는 22일간의 '합동 득도 수계산림 대법회'(受戒山林大法會)가 끝나면서 173명의 수계승(授戒僧)들이 절을 떠나자 선암사 측이 일부

리의 입장을 거부하고 협상에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30만 서명 운동과 함께 총무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결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협상은 앞으로는 나랑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측은 8일 선암사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갖는데 이어 9일에는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종단 간부 스님들이 모여 선암사 사태로 불거진 종단 내 갈등과 불신 해소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대화 대신 협만 남은 선암사에는 부처님의 지비 대신 불안감만 감돌고 있다.

▲객선정기자 ksj@kwangju.co.kr

입동 추위 '건강 주의보'

소아 장염 20~30% 급증 노인 고혈압 등 관리 비상

'입동(立冬)을 전후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며 영유아·노년층에 '건강 주의보'가 내렸다.

기온이 내려가면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 장염과 혈관 수축으로 인한 고혈압, 뇌졸중 질환이 많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6일 광주지역 소아과 병·의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장염 증세를 호소하는 유·소아 환자들이 경상시보다 20~30% 가량 증가했다. 광주시 서구 미즈피아소아과의 경우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의 50% 이상이 소아 장염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남구 작은아이콘소아과 박성호원장은 "하루 20~30명이 소아 장염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소아 장염은 초기에는 고열·구토 등 전형적인 감기 증상을 보이다 2~3일 후부터 구토·설사를 동반한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유행하는데 '로타 바이러스'(Rotavirus)가 주원인이며 전염성이 강하다.

광주 기독병원 순환기내과 박종준 교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배변처리를 잘 해 주고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많아진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증과 심장발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뇌혈관·허혈성 심장질환 등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평균 33%가량 높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종준 교수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고, 외출 때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한 겹 더 챙겨 입으며 밤에는 두껍고 무거운 이불 보다 얇고 가벼우며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덮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새벽 찬바람에 노출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응급상태가 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하는 운동은 피하고 따뜻한 햇볕이 나는 낮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에 들어가는 게 좋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겨울이 벌써 왔네"

6일 가을비 뒤끝, 강풍이 불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광주 출장로 거리를 걷는 행인들이 잔뜩 몸을 움츠린 채 걷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입동'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서해안 오늘 첫 눈 소식 최저 3도 '가장 추운 아침'

'입동(立冬)인 7일 광주·전남에 첫 눈 소식이 나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아침 최저기온이 3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예보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엔 비나 눈이 0.5~2c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동'을 전후해 아침 최저기온은 ▲5일 14도 ▲6일 7도 ▲7일 3도 등 연일 급강하하고 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앞서 6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리산 천왕봉(해발 1,915m)과 장터목 산장(해발 1,750m)에 올 들어 첫눈이 내렸다. 이날 천왕봉과 장터목 일대는 2~5cm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2.7도를 기록했다.

지리산 첫눈은 지난해(10월30일)보다 1주일가량 늦게 내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가을이 벌써 가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나 눈이 오겠다.

11월 7일 (음 9월 17일) ◆주간날씨

광주	구름맑음	3~13℃
목포	흐리고 비/눈	4~14℃
여수	구름맑음	7~14℃
순천	구름맑음	5~14℃
해남	구름맑음	2~14℃
영광	구름맑음	3~14℃
고성	구름맑음	3~14℃
담양	구름맑음	5~15℃
수성	구름맑음	1~13℃
진안	구름맑음	3~14℃
무안	구름맑음	3~13℃
장흥	구름맑음	2~12℃
강진	구름맑음	0~12℃
보성	구름맑음	2~12℃

서해남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목포 밀물 < 02:41 썰물 < 07:58
15:30 20:39
여수 밀물 < 10:06 썰물 < 03:30
22:05 16:08

▲해돋이 06:59 ▲해질 17:33 ▲달돋 18:34 ▲달질 08: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날씨						
최저/최고	4/18	8/13	5/12	3/10	2/11	3/12

광주 북구청 지방세정 최우수기관 선정

북구청이 '200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청은 6일 "광주시가 주관한 200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날 오전 9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표창 및 상사업비 1억3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수 증대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세외수입 증대실적 ▲기관장 관심도를 포함한 세정운영 실적 등 4개 부문 19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북구청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주요 세목 징수를 높이기 ▲관내 전광판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 ▲고액 납세자 대상 납부 협조 전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세무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 회계, 자동차세 체납 차관 반환관 상시 영치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결혼·임신 제약 '간호사 서약서' 물의

노동청, 순천 대형병원 조사

순천시의 한 대형 병원이 결혼과 임신을 제약하는 서약서를 신규 임용 간호사들로부터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순천 S병원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신규 채용자 내규가 정해진 2004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신규 간호사들이 '혼전 임신 시 사직할을 원칙으로 한다' '임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작성해 왔다.

간호부장이 함께 서명 날인한 이 서약서는 당시 한 간호사의 혼전 임신이 문제가 되자 간호사들이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 신규 간호사들에게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9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여수지청은 병원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실내오염농도 20% 이상 낮아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

- **실내오염**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TVOC 등 (100% 자동제거) - 실내 공기 질 개선
- **에너지 절약** : - 100% 자동제어 - 24시간 24시간 - 100% 자동제어

문의 : 062-603-2752

제주도 웰빙 패키지 여행

₩149,000~

광주-제주 왕복항공, 2박 3일 정기관광, 숙박, 식사, 입장료, 교통비 포함

제주도 웰빙 패키지 여행

제주도 관광협회

1588-6660 / 02-23-8903